

특집 - 거리의 열,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켜줍니다

훼손되는 국보·보물 점검

# 경주 고속철 사상최대 佛寶 훼손 '大法亂'

## '남산은 종로통' 천년고도 사라져... 건교·문체부안 모두 불교유적 45점

경주는 노천박물관이다. 곳곳에 천년고도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화유적지에 고속철도를 세우려고 한다. 과연 어떤 불교관련 문화재가 피해를 입게 되는지 1993년 영남대 박물관이 지표조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건교부안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고속철도 경주노선 인근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는 총 1백29점이며 불교관련 문화재는 45점이다. 이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보물 8, 유형문화재 2, 사적 2 곳이다.

보물로는 성건동삼광사지 당간지주(127호) 서악동마애석불상(62호) 서악동3층석탑(65호) 효현동 3층석탑(67호) 탑동남은사지 당간지주(909호) 용장사곡3층석탑(186호) 용장사 석불좌상(187호) 마애여래좌상(913호)이며 유형문화재는 노곡리침식곡석불좌상(112호) 노곡리열암곡석불좌상(113호)이다. 또한 사정동흥룡사지(사적15호) 용장리 남산일원(사적311~4호)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고속철에 인접한 불교문화재 가운데 불상, 석탑, 비석, 당간지주 등은 진동, 소음, 교통공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노선은 건교부안과 인접하는 구간이 있어 19건의 불교문화재가 중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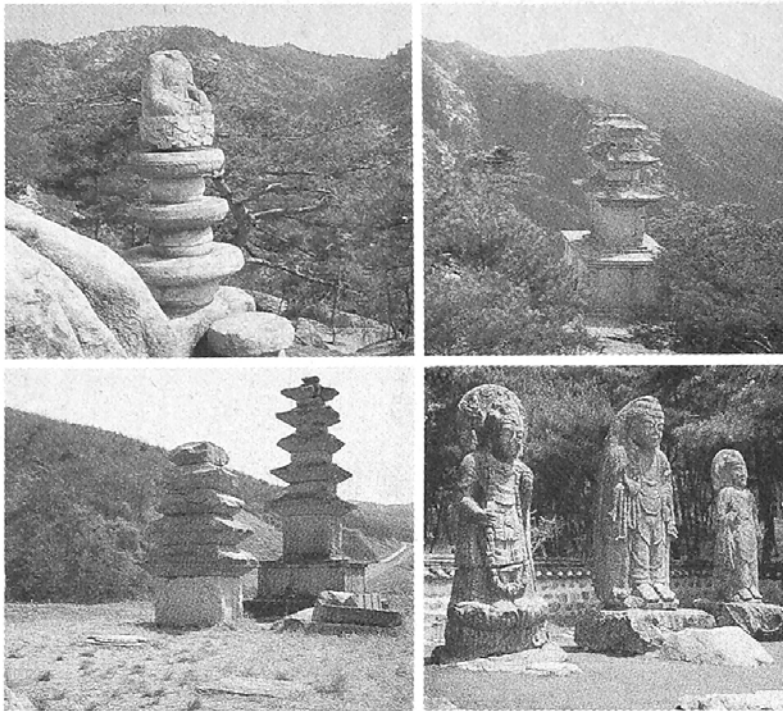
### 문체부안

환경 건교부가 경주일부구간을 조정하여 내놓은 검토노선은 신라의 선산이라 할 선도산과 남산을 바짝 근접하여 지나가게 되어 있어 경주남산의 환경 및 불교문화재의 파괴가 예상된다.

총63건의 문화재 가운데 45건의 불교문화재가 산재해있는 이 노선은 3년전 건교부가 설계한 후 폐기한 것으로 문화계의 반발이 있어 공여지책으로 문체부가 새로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부분 불교문화재가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문화재로는 보물 63호인 배동석불입상과 유형문화재 7점이 있다. 송선암마애석불상군(유형문화재 20호) 용장리마애대불입상(114호) 백운대마애석불입상(206호) 배동마애관음보살상(19호) 배동계곡선각여래좌상(159호) 배동삼층석불상(21호) 배동입곡석불두(94호) 등이 유형문화재이다.

이처럼 문체부가 내놓은 노선은 불교문화재 훼손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한 문화재' 고속철도의 통과로 경주지역 불교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용장사지 삼층대좌불상·3층석탑·선방굴 삼존불·장원리시지 5층석탑.

### 인터뷰

●고속철 제3수정노선 제안 강태호 교수●

"경주 천천읍에서 화천리를 지나 내남면 아래로 빠지는 경주 서남쪽노선이 문화유적의 보존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국대 강태호교수(조경학과)는 지난 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주경실련(창립준비위원장 임배근 동국대교수) 주최 '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공청회'에 경주경실련 정책위원으로 참석, 도심통과노선과 외곽노선



## "공사비덜고 문화유적 보호 유리" 도시 장기발전에 도움... "적극 홍보 할 터"

대신 새로운 경주노선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강교수는 "노선의 타당성·교통·환경·기반시설·용지보상·국철노선이설 및 역사통합문제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의 노선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제3의 노선이 동국대~효동~북녘들~울산을 지나는 건교부노선(48.5km)보다 노선의 총길이가 10.5km쯤 짧아 공사비가 경감되고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주 신라왕경지역과 선도산·남산·망산지역을 훨씬 벗어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가장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역사(驛舍)의 입지 등도 건철음이 건교부가 주장하는

북녘들이나 이조리보다도 적합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로 건교부안과는 달리 건철지역은 평지여서 토공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며 △개방가능지역이 5백만 평규모로 북녘들(2백50만평)이나 이조리(1백50만평)보다 넓어 장기적으로 도시확장에 대비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교부의 도심통과노선의 경우 도심에 산재한 문화유적경관과 땅속 문화재를 크게 해치고 문체부의 외곽노선도 세계최대의 석불보고인 남산자락에 바짝 붙어 통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경주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펴 도심통과노선 철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훼손 왜 불가피한가

고속철도가 문화재에 끼치는 것은 크게 진동과 환경피해다.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경주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편도 218회, 총 436회가 된다. 이중 경주역에 정차하는 횟수는 60여회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시속 2백70~3백km로 경주를 통과 하게 된다.

기존의 국철은 바퀴소음이 주 소음원이나 고속철도는 고속으로 인한 속도파가 가장 큰 피해를 준다.속도파는 곧 진동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접문화재 피해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속으로 운행될 때 제기되는 공력소음(차체 표면에서 공기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동력학적 소음)이 문제다. 국내에서 운행될 프랑스의 TGV고속철이 시속 150km로 달릴때 200m밖까지도 70dB의 소음

진동을 준다.(방송복설치 후 61db). 이것은 지진으로 볼때 진도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200m 밖에서도 몸으로 진동을 느낄수 있고 깜짝놀라게 되며, 창문이 덜컹거리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프랑스는 설계 단

순도 만만치 않다. 장기적으로 볼때, 도시경관으로 인한 인구와 밀로 파생되는 인위적인 문화재 훼손이 더 클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선도산과 남산사이에 역사가 지어질때 연간 6백만명의 관광객과 3백만명의 울산 포항등 주민이 환승하는 역세권이 형성되고 신시가지도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최대의 불교성지 남산과 신라의 성산인 선도산의 황폐는 명약관화하다. 환승차량의 집결, 오며, 행락객의 쓰레기 공해로 삼존불, 배동석불 등 22점의 남산성보가 시장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15m의 고가철도가 경주도심을 끼고 선도산과 남산사이로 지나가게 되면 그자체가 세계 10대문화유적인 경주의 경관 훼손이된다.

### 전철 하루 4백36회 진동... 진도 2 해당

### 역세권 형성때 성보도시 공해 시달려

계에서 주위에 500m이내에는 시설물이 없는 곳으로 TGV노선을 세웠다.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은 1964년 신간선 개통이후 소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을 강구, 무려 20년만에 해결을 보았다. 고속철로 인한 환경과 경관훼손

## 佛 문화재 전문가 피샤르·포티에씨 견해

"경주와 같은 훌륭한 역사도시에 고속철도를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주 경유가 부득이하다면 도시에서 거리를 두고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기 위해 방한한 9명의 프랑스국립국립연구원(EFEO)소속 학자중 세계적인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피에르 피샤르씨(59)와 크리스토퍼 포티에씨(30)는 고속철도의 경주 우회통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의 TGV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차하는 열차는 도시 외곽 10km 정도에서 고속선을 벗어나 도심을 통과하는 일반 열차의 기준선로를 이용해 정차합니다." 피샤르씨와 포티에씨는 고속



◇ 피샤르씨



◇ 포티에씨

## "고속철도 경주우회해야 마땅"

### "정차면 기존철도로 도심연결" 권고

열차가 도시를 우회하도록 하고 정차시에는 기존의 일반 철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 기술자들이 도심통과시는 기존철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국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샤르씨와 포티에씨는 유네스코의 위촉을 받아 아시아의 고도(古都) 복원작업에 참여하

고 있다. 피샤르씨는 75년 대지진으로 많은 유적이 훼손된 미얀마의 옛 수도 파간유적등의 복원에 참여했다. 불탑유적만도 3천여 개에 달하는 파간유적의 복원을 위해 유네스코등은 지난 20여년 동안 기술지원과 전문가 양성 등에 노력해 왔다. 포티에씨는 92년 캄보디아에서 지난 75년 공산화이래 폐지됐던 EFEO의 연구소를 재개하면서 앙코르의 복원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 ◇경주도심노선 주요 불교문화재

문화재 이름	사적 유형
성건동삼광사지당간지주	보물 127호
서악동마애석불상	보물 62호
서악동 3층석탑	보물 65호
효현동 3층석탑	보물 67호
남은사지 당간지주	보물 909호
용장사곡 3층석탑	보물 186호
용장사 석불좌상	보물 187호
용장리 마애여래좌상	보물 913호
배동 석불입상	보물 63호
석조석가여래좌상	보물 245호
사정동 흥룡사지	사적 15호
용장리 남산일원	사적 311~4호
노곡리 석불좌상	유형문화재 112호
노곡리 열암곡석불좌상	유형문화재 113호
마애석불상군	유형문화재 20호
용장리 마애대불입상	유형문화재 114호
백운대마애석불입상	유형문화재 206호
배동 마애관음보살상	유형문화재 19호
배동 여래좌상	유형문화재 159호
배동 육존불상	유형문화재 21호
배동 입곡석불두	유형문화재 94호
석조관음보살입상	유형문화재 2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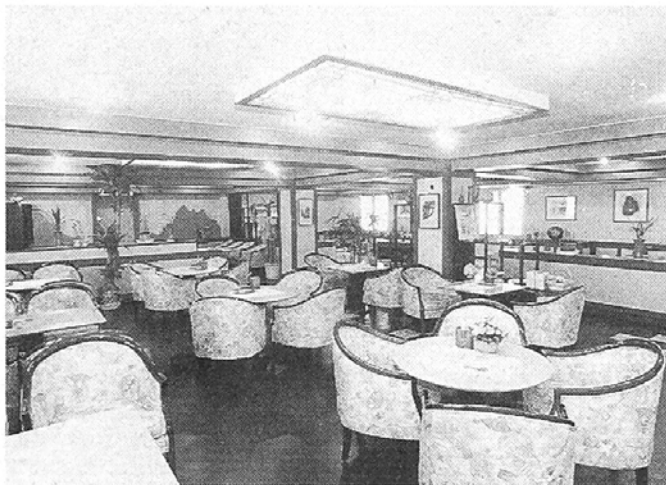
##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 녹수 정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 녹수 정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 녹수 정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